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4. 12. 15 | 통권 제59호(2014-11) |

201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5년 전망*

[요약]

- 2014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54천 명 증가, 그러나 2014년 2월과 8월 정점을 보인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15~24세와 50대 이상 중고령층 주도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취업자 상승에 힘입어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 증가
- 2014년 중 상용직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임시직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한편 제조업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상반기 상용직, 하반기 임시직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 우리 경제는 2014년 1분기 이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2015년 초부터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취업자는 경기회복과 2014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혼합되어 연간 420천 명(1.6%)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201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5년 전망」(동향분석팀(2014),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수정·요약하여 작성한 것임.

2014년 취업자 수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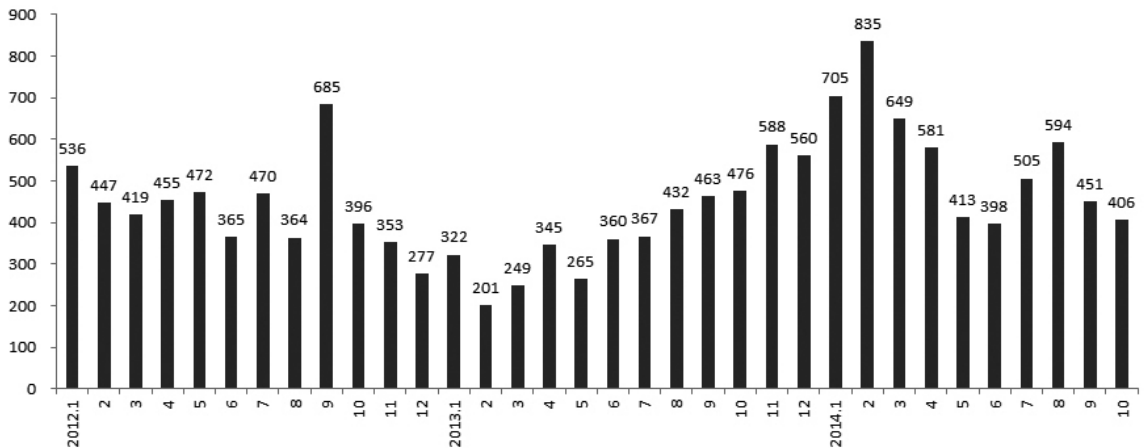
- 2014년 1~10월 평균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54천 명 증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2013년 하반기 경기가 호전되면서 취업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면이 2014년에도 이어져 2월 835천 명 증가라는 이례적인 정점을 기록
 -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여 6월 저점

(398천 명)을 기록하였고 7월과 8월 연속 50만 명이 넘는 큰 폭의 증가로 반등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규모가 작아지고 있음.

-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취업과 실업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시장 밖의 인구인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감소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폭과 감소폭이 둔화하는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음.

[그림 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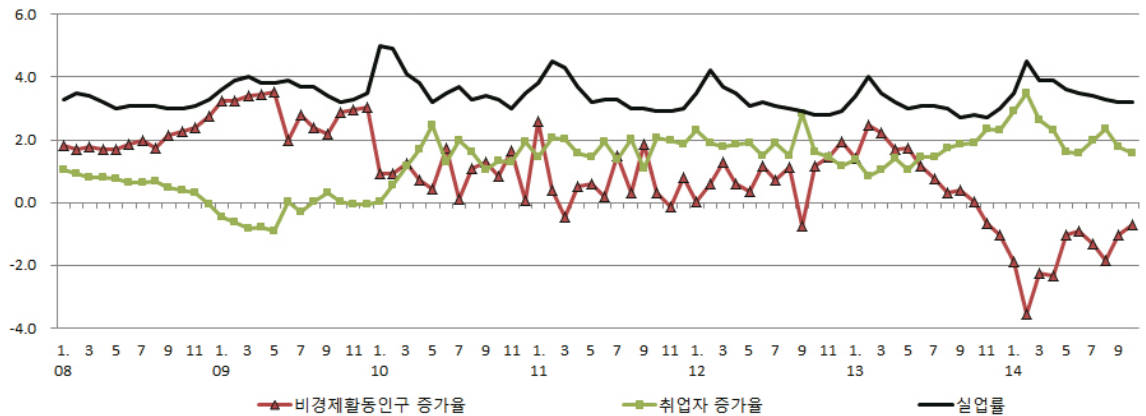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2]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령층 고용증가 주도 및 20대 초반 취업자 증가

- 15~29세 청년층(24+59=83천 명)과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246+199=445천 명)해 전체 취업자 수 변화를 주도

- 특히 15~19세는 인구가 73천 명 감소했음에도 취업자가 24천 명 증가했고, 20~24세는 인구 증가만큼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25~29세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인구감소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침.

〈표 1〉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분해 모형의 모수 추정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각 연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증감			
	연도			1~10월 평균				2014. 1~10월	2012. 1~10월	2013. 1~10월	2014. 1~10월
	2011	2012	2013	2012. 1~10월	2013. 1~10월	2014. 1~10월					
전체	416	437	386	461	348	554	25,584	522	527	410	
15~19세	22	4	-7	3	-8	24	248	-50	-31	-73	
20대	-58	-40	-44	-31	-62	59	3,624	-34	66	31	
20~24세	-11	89	29	89	23	86	1,357	131	154	83	
25~29세	-47	-129	-73	-120	-85	-27	2,267	-165	-88	-52	
30대	-47	-31	-21	-31	-20	-19	5,712	-109	-68	-112	
30~34세	44	79	57	77	70	15	2,909	41	54	-44	
35~39세	-91	-110	-78	-108	-90	-34	2,804	-150	-122	-67	
40대	57	11	22	15	15	45	6,679	17	25	-19	
50대	291	270	254	281	248	246	5,830	315	260	210	
60세 이상	149	222	181	225	176	199	3,490	383	275	37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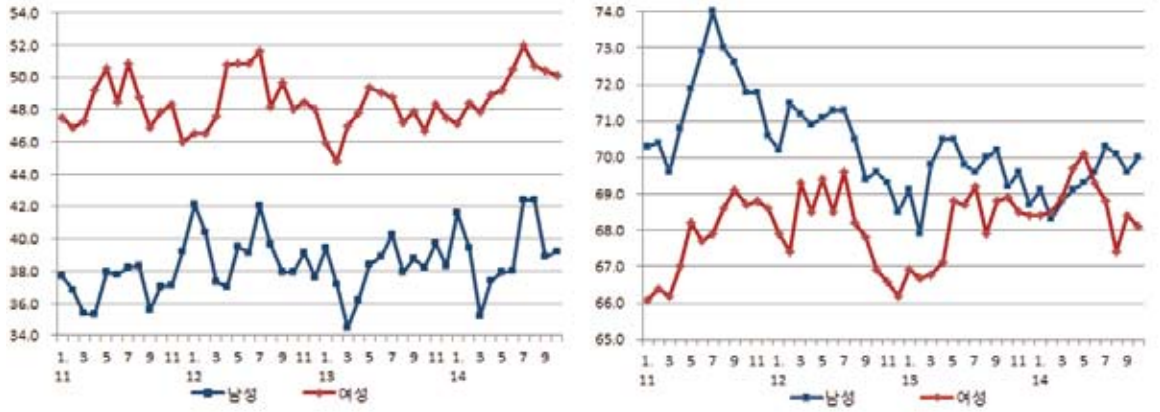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2	2011. 1~10월	2012. 1~10월	2013. 1~10월	2014. 1~10월
전체	전체	59.1	59.4	59.1	59.4	59.5	60.2
	15~19세	6.8	7.0	6.9	7.0	6.9	7.8
	20대	58.5	58.1	58.5	58.4	56.8	57.4
	20~24세	43.5	44.5	43.5	44.7	43.1	44.8
	25~29세	69.7	69.2	69.7	69.6	68.8	69.1
	30대	72.2	72.7	72.1	72.7	73.0	73.8
	30~34세	71.0	72.2	70.8	72.0	72.8	74.0
	35~39세	73.3	73.2	73.2	73.3	73.3	73.7
	40대	78.4	78.3	78.3	78.4	78.3	79.0
	50대	71.6	72.2	71.5	72.2	73.0	74.2
60세 이상	36.5	37.5	36.7	37.7	38.5	39.1	
남성 (여성)	전체	70.5 (48.1)	70.8 (48.4)	70.5 (48.1)	70.8 (48.5)	70.7 (48.8)	71.4 (49.6)
	15~19세	5.5 (8.1)	5.7 (8.3)	5.6 (8.2)	5.9 (8.3)	5.8 (8.0)	6.9 (8.7)
	20대	58.3 (58.7)	57.3 (58.8)	58.4 (58.7)	57.6 (59.1)	55.7 (57.8)	55.8 (59.0)
	20~24세	37.2 (48.2)	39.1 (48.9)	37.0 (48.5)	39.3 (49.1)	38.0 (47.5)	39.2 (49.5)
	25~29세	71.6 (67.8)	70.4 (68.0)	71.7 (67.6)	70.7 (68.4)	69.6 (68.0)	69.4 (68.8)
	30대	89.8 (53.7)	90.3 (54.5)	89.7 (53.5)	90.3 (54.3)	90.1 (55.4)	90.9 (56.2)
	30~34세	87.9 (53.2)	89.0 (54.8)	87.7 (53.0)	89.0 (54.3)	88.3 (56.7)	89.8 (57.5)
	35~39세	91.6 (54.1)	91.7 (54.1)	91.6 (54.0)	91.6 (54.3)	92.0 (54.0)	92.1 (54.8)
	40대	91.6 (64.9)	91.7 (64.6)	91.4 (64.9)	91.7 (64.7)	91.8 (64.5)	92.7 (65.1)
	50대	85.4 (57.7)	86.3 (58.1)	85.3 (57.7)	86.3 (58.1)	86.7 (59.4)	87.5 (60.8)
60세 이상	49.3 (26.6)	49.9 (27.9)	49.5 (26.8)	50.1 (28.1)	51.1 (28.9)	51.5 (29.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 20~24세 좌측, 25~29세 우측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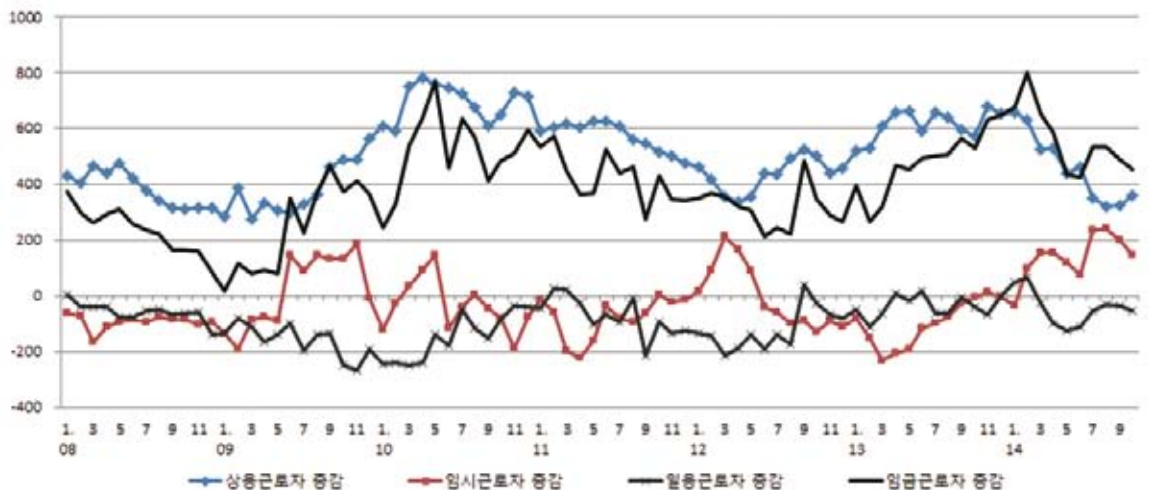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연도별 증감			1~10월 평균			
	2011	2012	2013	2011, 1~10월	2012, 1~10월	2013, 1~10월	2014, 1~10월
전 체	416	436	386	406	461	348	554
임금	427	315	483	443	322	451	560
상용직	575	436	615	591	434	605	461
임시직	-78	-2	-96	-90	18	-116	140
일용직	-70	-120	-37	-59	-129	-38	-41
비임금	-11	121	-97	-36	139	-103	-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43	-39	-2	58	-42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	81	-28	-24	86	-29	-31
무급가족종사자	-12	-3	-30	-11	-6	-32	-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으며, 특히 50대의 경우 인구증가를 넘는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함.

■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모든 성·연령대에서 고용률은 크게 증가(표 2 참조)

- 특히 20대 증가가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20~24세의 경우 남녀 고용률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여성(2.0%p)이 남성(1.2%p)보다 더 가파른 증가를 함(그림 3 참조).

- 한편 25~29세는 상반기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남성은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추세가 역전되었음.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4년 1~10월 평균 임금 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461천 명 증가와 임시직 140천 명 증가에 힘입어 560천 명 증가

- 주목할 만한 점은 상용직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한 2013년과는 달리, 2014년에는 상용직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임시직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

-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상용직 증가폭 둔화가

8월(323천 명 ↑) 저점을 기록한 이후 9월(324천 명 ↑), 10월(361천 명 ↑) 두 달 연속 증가하기 시작했고, 임시직 증가폭이 8월(213천 명 ↑)을 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9월(164천 명 ↑), 10월(95천 명 ↑)로 둔화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존의 추세가 재역전될 가능성이 있어보임.

- 일용근로자는 2014년 3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32천 명 증가하였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8천 명)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2013년 1~10월 대비 7천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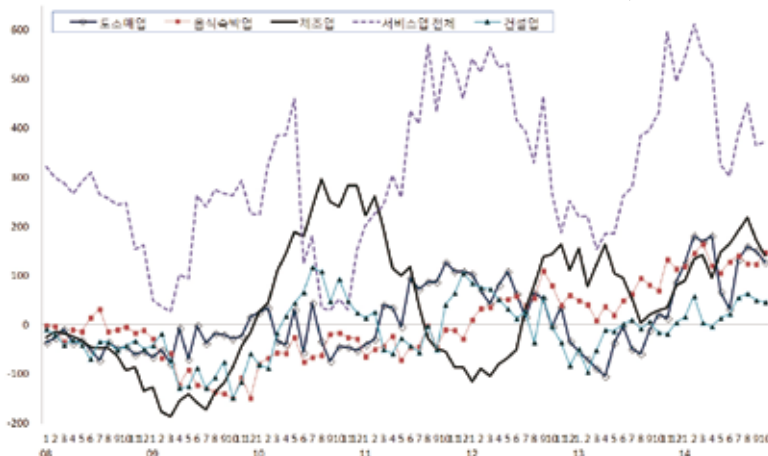
-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4년 3월 증가로 돌아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이 크게 둔화해 이같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줄어들다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제조업 고용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서비스업 고용 확대

■ 제조업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2014년 1~9월 평균

[그림 5]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51천 명 증가(10월 142천 명),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1~9월 평균 453천 명 증가(10월 373천 명)하는 등 전년인 2013년도에 비해 확대된 고용증가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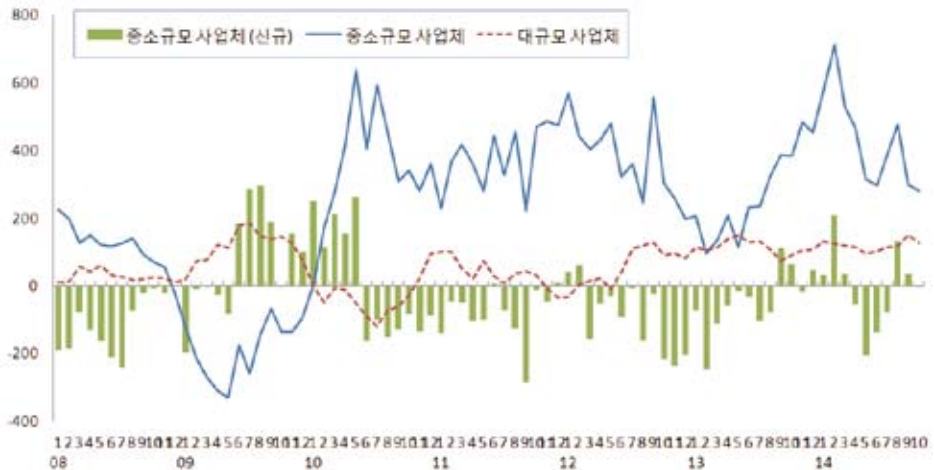
- 농림어업의 경우 3월부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계속 감소폭이 확대되어 2분기 54천 명, 3분기 121천 명 감소하는 등 1~10월 중 64천 명이 감소함.
- 건설업에서는 임시직 중심으로 2014년 1~10월 중 34천 명(상용직 6천 명, 임시직 22천 명)이 증가함.

중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고용증가, 신규채용은 여전히 부진

- 2014년 1~10월 중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꾸준히 10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434천 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554천 명 증가를 견인함.
- 대규모 사업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69천 명과 62천 명으로 균형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함. 한편 중소기업 사업체에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그림 6]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및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 1~10월	2013. 1~10월	2014. 1~10월
전체 취업자		145	-72	323	415	436	386	461	348	554
300인 미만	전체	117	-189	354	378	381	272	412	233	434
	신규취업자	-110	74	12	-81	-90	-43	-64	-54	-3
	도소매업	-38	-26	-7	57	58	-29	66	-43	116
	음식숙박업	5	-108	-52	-40	54	62	54	50	129
	보건 및 사회복지	89	155	156	151	89	129	91	122	127
300인 이상	전체	28	117	-31	37	55	114	49	115	120
	신규취업자	5	16	-2	0	-18	5	-20	4	-10
	제조업	-44	-60	-14	-13	55	41	45	43	69
	전체 서비스업	61	163	0	57	-1	62	4	60	62
	건설업	11	11	-11	-5	4	1	4	2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임금근로자의 근속연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2. 1~10월	2013. 1~10월	2014. 1~10월
임금 근로자	전 체	236	247	517	426	315	483	322	451	560
	3개월 미만	-105	90	10	-81	-108	-37	-84	-50	-13
	3개월~1년 미만	-31	-19	171	-48	17	-75	25	-115	26
	1년 이상	372	176	336	555	406	594	381	616	547
신규채용 규모	제조업	-12	-18	26	-11	-20	-10	-17	-11	-37
	서비스업	-44	106	-10	-44	-62	-39	-44	-52	21
	음식숙박업	-7	-14	-5	-10	-3	11	1	7	15
	보건 및 사회복지	9	32	17	13	-4	-2	-3	-5	19
	협회 및 단체 등	-2	4	1	1	-1	-1	-1	-2	24
	건설업	-40	-10	-6	-28	-12	21	-8	21	11
	중소규모 사업체	-110	74	12	-81	-90	-43	-64	-54	-3
	대규모 사업체	5	16	-2	0	-18	5	-20	4	-10
	상용직	8	9	66	29	-5	0	8	-11	-8
	임시직	-36	136	24	-83	-56	-48	-48	-50	12
	일용직	-77	-55	-81	-27	-47	11	-43	11	-18
	20·30대	-68	15	-32	-66	-95	-22	-85	-34	-26
	50세 이상	-4	88	46	16	37	11	43	13	44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업 취업이 주도하여 1~10월 중 전체 434천 명 중 383천 명을 차지함.

- 중소기업 취업자는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한 한편, 농림어업(-65천 명), 가구내 고용활동(-57천 명), 금융 및 보험업(-26천 명) 등의 업종에서는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3개월 미만 근속자를 신규채용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2014년 1~10월 중 신규채용 양상은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13천 명 감소함.
 - 신규채용은 50세 이상 중고령층(44천 명)이 주도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에서는 1~10월 중 26천 명 감소함. 상용직과 일용직은 신규채용이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25천 명) 등을 중심으로 임시직 신규채용만 12천 명 증가함.
 - 제조업에서는 2014년 3월 이후 현재까지 8개월 연속으로 신규채용이 감소하여 1~10월 평균 37천 명이 감소함.

- 서비스 부문 중 2014년 중 신규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4천 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천 명), 음식숙박업(15천 명)이었음.

2015년 취업자 수 420천 명(1.6%) 증가 예상

- 2014년 3분기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2%로 나타나 1분기 3.9%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어 옴.
 -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4월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악화되는 대외여건과 국내외 소비회복 미흡 등을 반영, 하향조정을 거듭하여 가장 최근인 10월 전망에서는 연간 3.9%로 전망함.
 - 2014년 1분기 중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597천 명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취업자 증가를 보이다가 3분기 들어서는 517천

〈표 6〉 2014년 하반기, 2015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4			2015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3.7	3.3	3.5	3.7	4.1	3.9
15세 이상 인구	42,397	42,614	42,505	42,816	43,043	42,929
경제활동인구	26,356	26,680	26,518	26,739	27,094	26,917
경제활동참가율	62.2	62.6	62.4	62.5	62.9	62.7
취업자	25,352	25,829	25,590	25,753	26,267	26,010
(증가율)	2.4	1.8	2.1	1.6	1.7	1.6
(증감수)	597	451	524	402	439	420
실업자	1,004	851	928	986	827	906
실업률	3.8	3.2	3.5	3.7	3.1	3.4
고용률	59.8	60.6	60.2	60.1	61.0	60.6
비경제활동인구	16,041	15,934	15,988	16,076	15,948	16,012

주: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명으로 조정되는 양상임.

- 경기둔화가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를 전제하면 4분기 중 취업자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어 올해 연간으로는 524천 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됨.

- 한국은행 전망대로 올 하반기의 경기둔화가 2015년부터 다시 회복으로 돌아서 상반기 3.7%, 하반기 4.1%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할 경우, 취업자는 이에 대한 후행반응과 올해의 높았던 취업자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상반기 중 402천 명, 하반기 439천 명(연간 420천 명, 전년대비 1.6%)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동향분석팀(한국노동연구원)

044-287-6605 / hsjung@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오상봉 / 편집·교정: 정 철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 044-287-6605 / Fax : 044-287-6649 / www.kli.re.kr